

最近 朝鮮 研究의 業績과 그 再出發

[二] 朝鮮學은 어떻게 樹立할것인가

申南澈

(3)

도리키어 朝鮮에 對한 歷史的 研究를 볼진대 그 너무나 寂寞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원갓 社會生活이 우리에게 不如意한바 많은 것에 比例하여 우리 朝鮮의 學問的 研究의 業績도 涼涼乎하여 特히 두드러진 著述을 보지 못 하였다. 그러나 近來에 이르러 氣銳한 젊은 學徒들의 刻苦한 研究 下에 차차로 專門的 研究가 차근차근 積著되어가는 것을 볼 때 기뻐하는 反面에 從來의 學者들의 散漫하고 反科學的인 □□然한 「研究」 든지 또는 考證爲主의 論斷이든지 모다 現實生活을 神話化시킨 非科學的 □度로 一貫한것이 아니 었는가. 그러나 이것이 社會全體의 現代의 關心에 寄與하는바 적엇기 때문에 새로운 科學的 方法 下에 朝鮮을 再認識하려는 傾向이 濃厚하게 諸成되어잇는것을 볼 때 참으로 飲幸한 생각을 禁할수가 없는 바이다.

이에 비로소 「朝鮮學」의 樹立, -歷史科學的 方法에 依한-이 바야흐로 부 르짖어지게 된 것은 現勞의 必然한바라고 하겠다.

그러나 「朝鮮學」이라는 것은 決코 觀念的으로 朝鮮의 獨自性을 神秘化하는 國粹主義的 見解와는 아무 因緣도 가지지 않은것이여야 한다는 것을 注意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朝鮮學」은 決코 朝鮮의 過去만을 研究對象으로하는것도 아니고 超越的 存在를 信仰對象으로하는 宗教도 아니다. 그러타고 文學 乃至 朝鮮 哲學의 理論的 內至歷史的 把握을 目的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史學的 研究만도 아니요. 文學的 研究만도 아니요. 또는 民俗史的 研究만도 아니다. 그것은 이것들을 모두 包容한다. 그러타고 이것들을 한 개의 補助科學으로하여 成立되는것도 아니다. 그것은 이것들의 專門的 科學的 研究의 諸成果가 全體的 連繫 下에서 現代의 意識을 通하여 批判造成된

때 비로소 나타나는 一個의 高次的 枕念이다. 그것은 반듯이 基礎的 諸研究가 朝鮮의 諸歷史的 形態를 專門的으로 究명한 成果를 十□로 하여 잇는 것이 아니면 아니 된다. 따라서 朝鮮學은 各部門의 研究없이는 不可能한 것이다. 朝鮮學은 朝鮮에 對한 無知한 歷史의 社會的 研究를 기다려 비로소 成立 하리라.

아직 朝鮮에잇어서 이「朝鮮學」에 對한 理論과 그 本質的 枕念規定은 아무도 하고 잇지 않은 것 같되다. 나의 이 提言이 安當할지 안할지는 拔日 大方의 批判에 依하여 決定될것이나 爲先나는 이같이 論定하고 나의 問題로 다음의 들어가라 한다.